

2017년 7월 17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어닝시즌 기대에 힘입어 상승 반도체 업종, 실적 개선 기대로 상승 주도

팩트셋, S&P 500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

유럽증시는 유니크레딧(-1.78%), 코메르츠뱅크(-1.20%) 등 금융주가 하락 주도. 미 증시는 경제지표 둔화와 금융주가 양호한 실적발표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자 하락 출발. 그러나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자 상승 전환에 성공. 특히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이 2분기 S&P500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지난주 대비 상향 조정하는 등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이 상승 요인(다우 +0.39%, 나스닥 +0.61%, S&P500 +0.47%, 러셀 2000 +0.22%)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은 S&P500 영업이익의 증가율 추정치를 지난주 대비 상향 조정(6.5%→6.8%). 이날 발표된 JP 모건을 비롯한 금융섹터가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를 내놓는데 따른 결과. 팩트셋은 금융섹터의 전망치를 지난주에는 0.3% 하향 조정했는데 이날은 지난주 대비 2.2%p 상향된 8.2%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 더불어 필수소비재(+0.5%), 산업재(+0.9%) 등도 상향 조정. 반면, 에너지(-30.1%), 소재(-0.3%), 유틸리티(-0.1%)는 하향 조정

한편, 팩트셋은 해외 매출이 50%가 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율(+11.4%)이 미국내 매출이 50%를 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율(+4.5%)을 크게 상회. 매출도 5.5%와 4.5% 증가로 해외 매출이 50% 넘는 기업들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 지난 6월 7일 OECD가 글로벌 경제전망에서 “최근 세계 경제에서 모멘텀 강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생산, 무역 및 투자의 증가로 GDP 성장률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등 글로벌 경기 개선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우호적인 영향을 줬던 것으로 판단.

더불어 팩트셋은 정부의 “의료, 세제, 무역 개혁, 인프라 투자 등 4가지 모두 진행된다면 더 많은 성장을 이끌 수 있다” 라고 주장. 문제는 “이 4가지 개혁안이 처리가 쉽지 않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 정책들의 통과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언급. 이를 감안하면 기업들이 컨퍼런스에서 정치 이슈와 관련된 발표(세제 개편 등)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 정치 이슈가 어닝 시즌에도 시장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

S&P500 2분기 영업이익 전망

섹터	3/31	7/07	7/14	조정폭
에너지	474.0%	387.5%	357.4%	-30.1%
IT	10.6%	10.5%	10.5%	0.0%
금융	8.6%	6.0%	8.2%	2.2%
S&P500	8.7%	6.5%	6.8%	0.3%
부동산	5.8%	3.6%	3.7%	0.1%
소재	10.1%	5.0%	4.7%	-0.3%
필수소비재	4.2%	2.7%	3.2%	0.5%
통신	5.1%	1.1%	0.8%	-0.3%
헬스케어	2.0%	0.5%	0.5%	0.0%
산업재	0.6%	1.6%	2.5%	0.9%
유틸리티	1.1%	-0.1%	-0.2%	-0.1%
경기소비재	1.2%	-2.2%	-2.0%	0.2%

자료: 팩트셋,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414.63	+0.21	홍콩항셱	26,389.23	+0.16
KOSDAQ	654.11	+0.22	영국	7,378.39	-0.47
DOW	21,637.74	+0.39	독일	12,631.72	-0.08
NASDAQ	6,312.47	+0.61	프랑스	5,235.31	-0.00
S&P 500	2,459.27	+0.47	스페인	10,655.10	-0.03
상하이종합	3,222.42	+0.13	그리스	856.47	+0.34
일본	20,118.86	+0.09	이탈리아	21,492.29	-0.1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반도체주 상승 지속

JP모건(-0.91%), BOA(-1.67%), 웰스파고(-1.10%) 등 금융주는 양호한 실적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 경제지표 둔화에 따른 국채금리 하락이 주요 요인이었다. 더불어 실적 발표 이후 지난번 연준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부담이었다. 반면, 마이크론(+2.12%), N비디아(+2.69%), 인텔(+1.28%), 브로드컴(+1.21%), AMAT(+1.81%), 램리서치(+1.52%) 등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업종은 세계반도체 산업협회에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5월까지 매출이 두자리 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어 올해 의미 있는 성장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라고 주장한데 힘입어 상승했다.

월마트(+1.72%)는 골드만삭스가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Neutral→Buy) 하자 상승했다. 넷엠플(+5.46%)도 골드만삭스가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Neutral→Buy) 하자 상승했다. 한편, 로스스토퍼(+0.63%)는 소매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투자의견 상향 조정(Market Perform→Outperform)하자 상승세를 유지했다. 버라이존(+0.16%), AT&T(+0.25%)는 바클레이즈가 목표주가를 각각 하향 조정(49달러→47달러, 41달러→39달러) 하자 상승폭을 축소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85%	대형 가치주 ETF	+0.27%
에너지섹터 ETF	+1.27%	중형 가치주 ETF	+0.42%
소매업체 ETF	-0.18%	소형 가치주 ETF	+0.03%
금융섹터 ETF	-0.44%	배당주 ETF	+0.35%
기술섹터 ETF	+0.89%	변동성 ETF	-1.80%
소셜 미디어업체 ETF	+0.64%	대형 성장주 ETF	+0.60%
인터넷업체 ETF	+0.56%	중형 성장주 ETF	+0.43%
리츠업체 ETF	+1.00%	소형 성장주 ETF	+0.26%
주택건설업체 ETF	+0.08%	신흥국 고배당 ETF	+1.43%
바이오섹터 ETF	0.00%	신흥국 저변동성 ETF	+0.78%
헬스케어 ETF	+0.68%	하이일드 ETF	+0.19%
곡물 ETF	+0.60%	물가연동채 ETF	-0.01%
반도체 ETF	+1.24%	Long/short ETF	-0.3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81.78	+0.54%	+2.08%	+0.22%
소재	346.31	+0.50%	+2.03%	+2.50%
산업재	593.52	+0.47%	+1.15%	+1.07%
경기소비재	717.53	+0.28%	+1.13%	-0.06%
필수소비재	564.15	+0.74%	+0.31%	-3.37%
헬스케어	925.82	+0.64%	+1.01%	+3.17%
금융	412.90	-0.52%	-0.65%	+2.20%
IT	981.08	+0.89%	+3.76%	+3.44%
통신	149.14	+0.24%	-1.02%	-6.92%
유틸리티	263.52	+0.54%	+0.84%	-3.69%
부동산	198.92	+1.06%	+1.49%	-1.0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중국 경제지표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1.91% MSCI 신흥 지수도 1.26%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1,589계약)에 힘입어 2.00pt 상승한 320.05pt로 마감했다. KOSPI로 환산하면 2,430pt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9.2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반도체 및 대형 기술섹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우호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

월요일 한국 증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국 시각 11시에 발표되는 중국이 2분기 GDP성장률을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 결과다. 시장 전망치는 지난달에 비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중국 무역지표와 제조업지표 등이 양호한 결과를 내놓았던 점을 감안하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기업 실적이 양호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번주에도 약 S&P500 기업들 중 70여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한다. 본격적인 어닝시즌을 앞두고 양호한 미국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도 시장참여자들의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다.

다만, 미국의 소매판매가 2개월 연속 감소한 점은 부담이다. 미국 소매판매 감소는 향후 제조업 둔화 우려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중국 경제지표와 미국 어닝시즌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 소매판매 2개월 연속 감소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6% 증가에 그쳤다. 이는 전월(1.9%) 수치나 시장 전망치(1.7%)를 하회한 수치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지표는 전년대비 1.7% 증가로 발표했다.

미국 6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전월(-0.3%)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를 보였다. 자동차를 제외한 수치 또한 전월 대비 0.2% 감소했고, 자동차와 가스를 제외한 소매 판매 또한 0.1% 감소했다.

미국 6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전월(0.1%), 시장 예상치(0.3%) 보다 증가폭이 컸다. 한편, 제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전월에는 0.4% 감소했었는데 이번에 증가하며 제조업지표 둔화 우려가 완화되었다. 더불어 공장 가동률은 전월(76.4%)보다 소폭 증가한 76.6%로 발표되었다. 다만 이는 시장 예상치(76.8%)를 하회했다.

미국 7월 소비심리지수는 전월(95.1)보다 둔화된 93.1로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현재 여건 지수(112.5→113.2)는 상승했으나 기대지수(83.9→80.2)가 감소했다.

미국 5월 기업재고는 지난달(-0.2%) 대비 0.3% 증가로 발표했다. 자동차 딜러들의 재고가 1.1% 증가한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유로존 5월 수출은 전년대비 12.9% 증가했다. 수입도 16.4% 증가하였다. 이 결과 214억 유로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유로존 지역 무역은 전년대비 15.3%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 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20.3% 증가한 반면 수입은 6.8% 증가에 그쳤다. 대 미국 수출은 6.6% 수입은 4.0% 증가했다. 한편, 대 러시아 수출은 24.6%, 수입은 37.6% 증가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무역 중단이 완화된 양상이었다. 한편, 대 한국 수출은 14.3%, 수입도 20.2% 증가하며 무역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였다.

애틀랜타 연은은 GDPNow를 통해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1일(2.6%) 보다 0.2%p 하향 조정된 결과다.

뉴욕 연은은 Nowcasting을 통해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을 1.90%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일(1.96%) 발표된 수치보다 하향 조정된 결과다.

상품 및 FX시장 동향

달러, 지표 둔화로 약세

국제유가는 글로벌 수요 증가와 나이지리아의 수출 차질 선언에 힘입어 상승 했다. 장 초반 미국의 소매판매 둔화로 하락 하기도 했으나 나이지리아가 경질유 수출에 대해 중단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한편, 베이커휴즈는 미국의 원유 시추공수가 지난주 대비 2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IEA(세계 에너지기구)가 지난 13일(목) 글로벌 수요 증가를 발표한 이후 원유에 대한 투자심리는 개선되고 있어 상승세는 유지되었다.

달러는 물가지표와 소매판매 둔화 영향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 가지난 5월에 0.1% 하락에 이어 6월에도 제자리 걸음에 그쳤다는 점이 부담이 되었다. 최근 물가둔화가 일시적이라는 옐런 연준의장을 비롯한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무색해진 결과였다. 더 나아가 소매 판매 또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미국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파운드화는 BOE 일부 위원들이 조기에 양적 완화 정책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자 달러대비 강세 폭이 컸다. 더불어 호주달러, 브라질 헤알화 등 신흥국 환율은 미국의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에 힘입어 달러대비 1% 내외의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둔화로 하락했다. 이 결과 9월은 물론 12월에도 금리인상이 가능할 지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었다. CME는 FedWatch를 통해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1.6%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도 일주일 전(45.6%)보다 증가한 51.6%로 발표했다.

금은 달러약세 및 부진한 미국의 물가지표 영향으로 상승했다. 구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철금속 또한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곡물은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특히 대두는 대중국 수출 발표(130만톤)로 상승했다. 더불어 주요 경작지에 대한 무더위 우려도 상승 요인이었다. 다만, 밀은 상승폭이 컸던 만큼 하락세가 이어졌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46.54	+1.00	+5.22	Dollar Index	95.153	-0.60	-0.89
브렌트유	48.91	+1.01	+4.71	EUR/USD	1.147	+0.63	+0.61
금	1,227.50	+0.84	+1.47	USD/JPY	112.53	-0.66	-1.22
은	15.933	+1.54	+3.29	GBP/USD	1.3098	+1.23	+1.61
알루미늄	1,927.00	+0.31	+0.21	USD/CHF	0.9635	-0.38	-0.05
전기동	5,926.00	+0.77	+1.91	AUD/USD	0.7832	+1.31	+3.04
아연	2,786.00	+0.51	+0.25	USD/CAD	1.2644	-0.61	-1.80
옥수수	376.25	+1.76	-4.14	USD/BRL	3.1796	-1.00	-3.09
밀	510.75	-0.20	-4.53	USD/CNH	6.766	-0.23	-0.56
대두	1,001.50	+1.42	-1.38	USD/KRW	1133.3	-0.26	-1.82
커피	133.70	+1.91	+3.72	USD/KRW NDF1M	1129.25	-0.69	-2.11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332	-1.25	-5.37	스페인	1.641	-5.60	-8.30
한국	2.247	+0.50	-7.00	포르투갈	3.121	-4.50	-0.80
일본	0.083	-0.10	-0.40	그리스	5.276	-1.90	-8.30
독일	0.597	-0.60	+2.40	이탈리아	2.284	-3.80	-5.30